

| | | | |
|---------------|------------------------|-------|------------------------|
| 보도 일시 | 2021. 11. 16.(화) 09:00 | 배포 일시 | 2021. 11. 16.(화) 09:00 |
| 담당 부서 <총괄>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책임자 | 과장 임성환 (044-203-2861) |
| | | 담당자 | 사무관 김미연 (044-203-2866) |

‘관광기업 이음주간’으로 관광 벤처기업 판로 개척과 업계 간 협업 지원한다

- 11. 16.~19. ‘2021 관광기업 이음주간’ 첫 개최, 관광산업 재도약 발판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11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2021 관광기업 이음 주간(Tourism Connect Week)’을 공식 누리집(connect.tourbiz.or.kr)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명동, 11. 16.~18.)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지자체 설명회, 상품박람회 등의 교류 행사를 하나로 엮어 주간행사로 구성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관광업계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 벤처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여행사, 지자체, 유관 기관 등 관광산업 생태계 주체 간 협업을 촉진한다.

관광 벤처기업·여행업계·지자체 등 230여 개 참여, 온오프라인 투자 유치와 상담 지원

올해는 참가자들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전통과 혁신기업, 대·중소형 관광기업과 자유롭게 만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대일 온라인설명회(밋업)를 비롯해 지자체·여행업계·투자자 대상 시연회(데모데이), 해외 투자 상담, 전시·체험, 자율 교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국내외 관광벤처 기업을 비롯해 여행업계, 지자체 등 230여 개 기관이 참가할 예정이며, 특히 체험콘텐츠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등 다양한 관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기업이 함께해 활발한 교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관광 벤처기업과 여행업계, 지자체, 투자자 등이 상담을 통해 사업을 모색하는 ‘일대일 온라인 설명회(밋업)’가 11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공식 누리집에서 열린다. 11월 17일(수)과 18일(목)에는 ‘세계 기업 투자 설명회(IR 피칭)’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관광 벤처기업 16개사가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등 해외 권역별 구매자와 투자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해외 투자 유치와 진출을 도모한다.

11. 16.~18.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춘 현장 행사도 진행

11. 17. 제2차관, 관광벤처기업 관계자 만나 지원정책 설명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11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서울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에서 관광 벤처기업 시연회, 상품 전시, 간담회 등 현장 행사도 이어진다.

‘관광 벤처기업 시연회’는 16일(화)에는 지자체, 17일(수)에는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연회에서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관광 벤처기업 15개사가 자신의 사업을 소개하고 협업을 제안한 후 지자체나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상담하고 교류한다. 18일(목)에는 ‘기업 투자 설명회’를 통해 관광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관광 벤처기업의 대표 상품을 소개하는 공간도 운영한다. 지능형(스마트) 외화 관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무동력 경주(레이싱) 놀이공원 등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관광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야외 활동(아웃도어) 중심 여행상품을 비롯해 친환경(E), 사회적 책임경영(S), 지배구조 개선(G)을 실천하는 관광상품과 서비스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 김정배 제2차관은 11월 17일(수), 간담회를 열어 관광 벤처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정배 차관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는 관광벤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우수한 관광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참가업체들에 대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connect.tour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 “여행 활성화 시점에 맞춰 올해 처음 시작한 ‘관광기업 이음주간’은 관광업계의 회복은 물론 관광기업의 판로개척과 업계 간 연계를 지원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간 열린 협업의 장을 확대하고 관광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관광 벤처기업과의 간담회 현장 사진(11. 17.) 별도 배포 예정

- 붙임 1. 2021 관광기업 이음주간 행사개요
- 2. 2021 관광기업 이음주간 행사 포스터

| | | | | |
|---------------|--------------------|-----|-----|--------------------|
| 담당 부서 <총괄>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책임자 | 과장 | 임성환 (044-203-2861)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미연 (044-203-2866) |
| <공동> | 한국관광공사 관광창업지원팀 | 책임자 | 팀장 | 안효원 (02-729-9462) |
| | | 담당자 | 차장 | 이미숙 (02-729-9458) |



□ 행사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 벤처기업의 판로개척과 업계 간 연계를 지원하고 재도약의 발판 마련
- * (행사의미) 개별 네트워크(지자체 설명회, 여행업계 밋업, 트래블마트 등)방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간행사로 처음 개최('22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

□ 행사개요

- (행 사 명) 2021 Tourism Connect Week(2021 관광기업 이음주간)
- (기 간) 11. 16.(화) ~ 11. 19.(금) 4일간, 10:00~18:00
- (장 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명동 소재) 및 누리집(connect.tourbiz.or.kr)
- (주요내용) 바이어-셀러 간 1:1 밋업, 데모데이(B2B, B2G, 투자), 전시·체험 등
- (행사규모) 국내외 관광분야 약 230개 업계·기관 참가
- * 관광스타트업 119개, 여행업계 57개, 지자체·유관기관 32개, 투자사 22개 등

□ 주요 프로그램

| 11.16(화)/ 1일 차 | 11.17(수)/ 2일 차 | 11.18(목)/ 3일 차 | 11.19(금)/ 4일 차 |
|---------------------------------------|---------------------------------------|---------------------------------------|----------------|
| 1:1 온라인 밋업(10:00~18:00) | | | |
| 지자체(B2G) 데모데이 (15:00~18:00) | 여행업(B2B) 데모데이 (15:00~18:00) | IR피칭(투자) 데모데이 (15:00~18:00) | |
| | 온라인 글로벌 피칭 및 상담(13:00~17:00) | | |
| 관광스타트업 상품 전시(10:00~18:00) | | | |

